

평창올림픽·월드컵 축구·아시안게임... 두근두근! 2018

2018년 대형 이벤트 풍성

가까이 해인 2018년 스포츠 캘린더는 대형 이벤트로 가득하다.

직전 하계올림픽과 다음 하계올림픽 사이 짝수 해엔 늘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이 한 세트처럼 차례로 스포츠 팬을 찾아간다.

그 첫 대회인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띤다.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개막해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에서 17일간 열전을 치르고 2월 25일 폐막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래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잔치로 이번 대회에는 90개 나라 이상에서 선수와 임원 등을 합쳐 약 5만 명이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90개국 이상이 참가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출전국의 신기원을 연다. 이는 동서 냉전의 양축인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대담트의 이징표를 세운 서울올림픽의 역사적 업적에 버금가는 성과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평화올림픽의 화룡점정을 이룬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평창올림픽에서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등을 앞세워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따내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과 세계적 스타들의 기량을 가까이에서 살필 좋은 기회다.

‘스키여제’ 린지 본과 미카엘라 시프린(이상 미국), 남자 알파인 스키 최강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 ‘빙속 황제’ 스펀 크라머(네덜란드), ‘썰매 탄 볼트’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는 평창을 빛낼 세계의 별이다.

IOC가 러시아 선수단에 출전 금지를 내린 탓에 개인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남자 쇼트트랙의 전설 안현수(러시아어 빅토르 안)와 세계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압도적인 스타 예브게니야



평창동계올림픽
2월 9일~25일

30년만에 안방서 올림픽 개최
역대 최대 90개국 이상 참가 기대



러시아 월드컵
6월 14일~7월 15일

한국, 독일·스웨덴·멕시코와 F조
18일 오후 9시 스웨덴과 첫 경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8월 18일~9월 2일

40개 종목·462개 부문 격돌
한국, 6회 연속 2위 도전

메드베데바도 ‘러시아에서 온 선수’(OAR)이라는 생소한 소속으로 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받아 평창동계패럴림픽이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여름에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심장이 요동친다. 올림픽을 제외하고 단일 스포츠로는 세계 최대 규모 이벤트인 2018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 11개 도시에 있는 1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총 32개 나라가 출전해 4개 팀씩 8개 조로 나누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새해를 며칠 앞두고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시 경포 해변에 설치된 오륜마크가 관광객들로부터 사진을 찍는 장소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오전 관광객들이 오륜마크 주변에서 해맞이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별리그를 치른 뒤 16강, 8강, 준결승 토너먼트를 거쳐 7월 15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망의 결승전에서 우승팀을 가린다.

전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은 내년 러시아에서 새로운 신화 창조에 나선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일 조 추첨식에서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돼 험난한 도전을 예고했다.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 내년 6월 18일 오후 9시 모스크바 인근 니즈니노보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스웨덴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24일 오전 3시 소치와 가까운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2차전에서 대결하고, 27일 오후 11

시 독일과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카잔 아레나에서 최종 3차전에서 맞붙는다.

대표팀은 16강 진출의 전초기지인 베이스캠프를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확정했다. 조별리그를 치를 경기장 3곳을 비행기 편으로 2시간 안팎으로 이어져 거점인 데다가 기후 등 환경과 훈련 여건이 좋아서다.

8월에는 44억 아시아인의 최대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월드컵 축구의 배턴을 이어받는다.

올해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린다. 자바 섬에 있는 자카르타와 수마트라 섬에 있는 팔렘방은 609km나 떨어져 있다. 항공기로는 1시간이 걸린다.

자카르타에 있는 겔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이 주경기장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래 6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한다.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중국을 앞지를 순 없지만, 일본보다는 나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나 그간 아시안게임에 종목별 2진급 선수를 파견하던 일본이 2020년 안방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원 1진급으로 선수단을 꾸릴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의 종합 2위 수성이 쉽지 않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전망이다. 총 40개 종목 아래 462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놓고 아시아의 거인들이 각축을 벌인다.

/연합뉴스

배짱 두둑한 KIA 히트 상품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13> 임기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KIA 타이거즈 임기영의 꿈같은 2017시즌이었다.

KIA의 구세주이자 히트 상품이 된 임기영은 시즌 시작 전에는 KIA 팬들에게 낯선 선수이자 가장 마지막에 거론되던 선발 후보였다.

그는 지난 2014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한화로 이적한 송은범의 보상선수로 KIA의 지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명 후 바로 상무에 입대하면서 지난 2년 낯선 선수였다. 그는 새 팀에서의 첫 스프링캠프에서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김진우, 홍건희, 김윤동 등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다.

그러나 임기영은 두 번의 완봉승과 한국시리즈 승리투수 등 KIA 선발진의 한 축이 됐다.

임기영은 “KIA 지명을 받았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 가는구나’ 이런 정도였다(웃음). 친구(김)윤동이기도 있고, 유니폼과 선수들만 바뀌고 야구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군대를 가야 하니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다”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책임감이 강해졌고 나를 뽑아준 팀이라는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했다. 롤리리프 역할을 생각했는데 기회가 오니까 욕심이 생겼다. 준비를 잘해서 자신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선발 첫 등판을 6이닝 4피안타 2탈삼진 1실점으로 마무리했다. 불펜 난조로 선발 첫승을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팀이 이겼으니 기분이 좋다”며 첫 선발 등판 소감을 언급했던 임기영. 올 시즌을 돌아보면서도 “우승을 먼저 이야기했다.”

임기영은 “두 번 완봉승도 했지만 하다 보니가 됐다. ‘아 끝났다’ 이런 기분이었다. 그런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올 시즌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우승을 꼽았다. 우승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생애 첫 가을잔치에서 덜컥 한국시리즈 선발을 맡았지만 “임기영다운” 배짱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그는 “한국시리즈 영상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저랬지?’라는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



2년 전 송은범 보상선수로 KIA 행...군 복무 마치고 4선발 활약

시즌 두 차례 완봉승·KS 첫 승 “아프지 않고 내 자리 찾겠다”

■ 임기영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평균자책점	승	패	이닝	자책점	피안타	피홈런	볼넷	탈삼진
3~4월	6	2.41	3	1	33.2	9	33	2	5	20
5월	5	1.71	3	1	31.2	6	32	1	4	17
6월	1	0.00	1	0	9	0	5	0	2	7
7월	5	7.36	0	2	18.1	15	31	2	5	9
8월	1	12.27	0	1	3.2	5	10	1	0	4
9월이상	5	5.32	1	1	22	13	27	3	2	16
종합	23	3.65	8	6	118.1	48	138	9	18	73

르겠다. 처음에 봉 떠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1회를 막고 여유가 생겼다. 크게 긴장은 안 됐다. 전날부터 빨리 공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웃었다.

진한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다. 임기영은 6월 7일 한화전에서 두 번째 완봉승을 거둔 뒤 페럼으로 마운드에서 이탈했다.

임기영은 “페럼이 가장 아쉽다. 개인 승을 더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팀에 더 기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며 “그래도 페럼 이후 부진을 겪으면서 한층 성장했다. 아파서 처음 2군에 갔을 때는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그런데 올라와서 잘 안 됐다. 두 번째 2군에 갔을 때는 안 아프게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을 내려놓고 시즌 초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기영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특유의 배짱 그리

고 호기심이다.

임기영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다. 바로 물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이 많다(웃음). 선발 첫 시즌이라서 선발 요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양)현종이 형이나 헛터, 팻, 이대진 코치님에게 많이 물어봤다”며 “매회, 매 타자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던지라는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순간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돌아봤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그는 ‘처음’을 이야기한다. 임기영은 “무조건은 없다. 내 자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안 된다. 올 시즌 그것을 배웠다. 펠라테스도 하고 개인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고 있다.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왼쪽)과 조계현 단장이 28일 구단사무실에서 연봉 재계약을 끝낸 뒤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양현종 23억에 KIA 잔류

올 시즌보다 8억 올라...타이거즈 연봉 1위·전체 2위

‘트리플 클라운’ 양현종(30)이 타이거즈 ‘연봉 킹’에 등극했다.

양현종이 28일 챔피언스필드 내 구단 사무실에서 조계현 단장과 면담을 갖고 연봉 23억원에 재계약 협상을 끝냈다. 올 시즌 연봉(15억원)보다 8억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써 양현종은 KBO리그 첫 ‘100억 사나이’ 최형우(15억원)를 누르고 타이거즈 연봉 1위 자리를 차지했다. KBO리그 전체로 따져도 이대호(34·롯데 자이언츠)의 25억에 이은 2위다.

양현종은 2017 정규시즌에서 3.44의 평균자책점으로 20승 6패를 수확하며 헛터와 공동 다승 1위에 올랐다. 한국시리즈에서는 2차전 선발로 나서 완봉승을 거둔 뒤 우승을 확정하는 5차전 세이브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11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1승 1세이브로 한국시리즈 MVP 타이틀을 차지한 양현종은 이상훈에 이어 22년 만에 기록된 토종 선발 20승을 앞세워 정규시즌 MVP까지 차지, 첫 통합 MVP의 위업을 이뤘다. 또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되면서 전무후무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최고 대우를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신임 조계현 단장님의 ‘1호 계약’이어서 더 부듯하다”면서 “격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액 연봉을 받게 된 만큼 더 책임감이 생긴다. 이제 운동에만 전념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 것”이라며 “동료, 선배들과 더욱 똘똘 뭉쳐 내년 시즌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양현종은 2016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취득했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KIA는 최형우와 나지완의 FA 계약을 진행해 성사했다. 하지만 뒤늦게 양현종이 KIA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최형우 영입과 나지완의 잔류에 예산을 소진한 KIA는 양현종과 1년 계약으로 접점을 찾았고 ‘1년 22억5000만원(계약금 7억5000만원+연봉 15원)’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KBO리그에서 FA선수는 4년 뒤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고, 비 FA 선수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